

1. Face(얼굴) 45×60cm 한지, 혼합재료, 삼베 2019
2. 얼굴(피카소) 31×44cm 한지, 혼합재료, 닥죽 2018
3. 꿈결 80×45cm 한지, 염료, 마감재 2018



**한국의 세계문화유산부터 피카소의 큐비즘까지**

전진숙 작가의 작품을 보면 과연 한지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싶다. 특히 첨성대, 한글 직지심체요절 등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열이 담긴 조형물을 한지로 재현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시리즈’는 많은 찬사를 받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문화유적 답사를 다녔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문화나 문화재의 아름다움, 선조들의 생활상을 닥종이에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한지에 담다’라는 주제로 강화, 순창의 고인돌, 수원 화성, 경주의 첨성대, 한글 직지심체요절, 농악 등을 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전진숙 작가는 손바닥만 한 사각형의 얼굴 속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



365 순환 60×90cm 한지, Upcycling/계린판

도 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닥종이 인형에 담았는데, 나중에 그 개수를 확인해보니 공교롭게도 108개여서 작품의 이름을 ‘108개의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라고 정했다. 또 ‘피카소와 가면’은 피카소의 큐비즘을 접목해 철사, 삼베 조각, 나무 등을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현대인의 얼굴을 만들었다. 한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놀라운 시도였고 해외에서도 전시 및 구입 문의가 많았다. “파블로 피카소 전시회에 갔다가 다양한 자화상을 보며 우리 한지와 접목해서 표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한지가 표현해낼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기도 했죠. 다행히 반응이 좋아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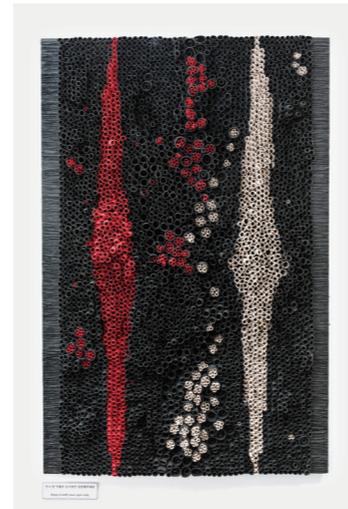
훈천의  
80×80cm 합지, 한지, 탈색기법

**우리 전통을 담은 고운 빛, 전 세계에 알릴 터**

전진숙 작가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작품 주제는 ‘흐를 류(流)’,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시간, 바람, 물 등 우리 곁을 스치는 찰나의 것들을 한지로 표현해내고 싶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한지를 잘라 3~4장 겹쳐 물을 사용하여 붙이고, 양손으로 수십 번 비비고 주무르는 좀 치 기법을 이용해 한 장, 한 장 핀셋으로 붙여내면 마치 유화로 그린 추상화처럼 그라데이션과 입체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마음에 꽂혔어요. ‘영과후진(盈科後進), 물은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는 맹자의 철학인데요. 물에 대한 비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잠시 쉬면서 제 부족함을

채웠고, 한지의 물성과 새로운 표현 기법을 더욱 깊게 연구했습니다.” 전진숙 작가는 2023년 2월 경인미술관 전시를 시작으로 3월 뱅크아트페어/롯데호텔, 6월 용산 공예관, 8월 전주 교동미술관, 10월 한국미술관 등 전시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지는 닥나무와 황촉규(黃蜀葵)를 주재료로 닥나무를 베고, 찌고, 삶고, 말리고, 벗기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고르게 섞고, 뜨고, 말리는 아흔아홉 번의 손질을 거친 후 마지막 사람이 백 번째로 만진다고 하여 ‘백지(百紙)’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지가 가진 우수성이 뛰어난 거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공존  
60×93cm 한지, 잉플기법



**고양시 공예명장이란?**

고양특례시는 공예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공예인을 선정해 고양시 공예명장 칭호를 부여한다. 분야는 목·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이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6개 분야를 통틀어 1명을 선정한다. 15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되면 공예명장 칭호 부여 및 증서 수여, 장려금 1천만 원이 지급된다.

